

원저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에 關한 研究

황정일 · 이준범 · 황민섭 · 윤종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Research of Qijingbama(奇經八脈) Pulse Diagnosis Method, Qikoujiudaomai(氣口九道脈)

Hwang Jung-il, Lee Jun-beom, Hwang Min-sub and Yoon Jong-hwa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 In this thesis we researched Qikoujiudaomai(氣口九道脈) which is one of pulse diagnosis method recorded in Maijing(脈經).

Methods : We studied relativity of Shierjingmai(十二經脈) & Qijingbama(奇經八脈), and different assignment of Shierjingmai(十二經脈) & Anzhenfa(按診法) of Qikoumai(氣口脈), Liubuding-weimaizhenfa(六部定位脈診法) and Qikoujiudaomai(氣口九道脈), Shierjingmai(十二經脈) for the principle of Qijingbama(奇經八脈) pulse diagnosis method, Qikoujiudaomai(氣口九道脈).

Results : 1. Qikoujiudaomai(氣口九道脈) applied Qikoumai(氣口脈), Sambujiuhoujin(三部九候診) of <<Nanjing · Shiebanan(難經 · 券十八難)>>.

2. Interpreting the diagnostic sense of "Nei(內) · Wai(外)" word in Qikoujiudaomai (氣口九道脈) recored in <<Maijing(脈經) · Juanshi(卷十) · Shoujiantu(手檢圖)>> as Fuan(浮按) · Chenan(沈按) corresponds with Qikoumai(氣口脈), Sanbujihouzhin(三部九候診) which accepeted Sanbujihouzhin(三部九候診) of <<Su Wen(素問) · San Bu Jiu Hou Lun(三部九候論)>>.

3. The pulse shape of Qikoujiudaomai(氣口九道脈) does not appear independently unless the disease at Qijingbama(奇經八脈) exist, and when one disease take sick, the pulse shape apears as Qishi(氣實).

Key words : Qijingbama(奇經八脈), Qikoujiudaomai(氣口九道脈), Anzhenfa(按診法), Sanbujihouzhin(三部九候診), Liubudingweimaizhenfa(六部定位脈診法), <<Maijing(脈經) · Juanshi(卷十) · Shoujiantu(手檢圖)>>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접수 : 2005년 7월 9일 · 수정 : 2005년 7월 23일 · 채택 : 2005년 7월 23일
· 교신저자 : 윤종화, 경주시 용강동 357번지 동국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과
Tel. 054-770-1257 H.P. 017-802-2624 E-mail : item0916@chol.com

I. 緒 論

馬王堆 出土 醫書에는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등의 十二經脈 初期形態의 經脈이 있고 奇經八脈의 概念은 없으며, 《素問》과 《靈樞》에는 任脈, 督脈, 衝脈, 帶脈, 陰蹻脈 및 陽蹻脈 즉 6개의 奇經脈이 記述되어 있고, 《難經》에서 陽維脈, 陰維脈을 포함하는 “奇經八脈”의 名稱, 作用, 循行 및 病候등이 體系의 으로 記載되어 있다¹⁻²⁾.

奇經八脈은 生理的인 方面에서 “正經의 脈氣가 充盈하면 奇經으로 流入하고 正經이 虧虛하면 資助하여 正經을 溝渠로 奇經을 湖澤에 比喻” 하였고³⁻⁴⁾, 病理的인 方面에서 “奇經八脈의 病은 獨立의 으로 發病하지 않고 十二正經과 十五絡脉의 病이 流入되어 發顯되고, 傳經이나 流走에 依한 傳變이 없이 忽然히 發病하고 忽然히 潛伏한다.” 하였다⁵⁻⁶⁾.

한편, 古代에 經脈의 診斷에서 由來한 脈診의 方

法은 多樣하였고⁷⁾, 馬王堆 出土 醫書에서는 十二經脈의 動脈處를 診斷하는 十二經脈脈診法⁸⁾ 등을, 《素問》 《靈樞》에서는 十二經脈을 診斷하는 脈診法으로 人迎寸口診⁹⁾ 등을, 《難經》에서는 氣口脈의 寸·關·尺 三部를 診脈하는 六部定位脈診法의 氣口診¹⁰⁾ 등을 運用하였다.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은 《素問》 《靈樞》 및 《難經》에도 없으며, 《脈經¹¹⁾·卷十·手檢圖¹²⁻¹³⁾》에 最初로 記載되어 있다. 그리고 明代의 《奇經八脈考¹⁴⁾》 《醫宗必讀¹⁵⁾》 등에 氣口九道脈의 部位, 病症 및 脈診方法에 關하여 記述되어 있고, 清代의 《身經通考¹⁶⁾》 《醫編¹⁷⁾》 등에 氣口九道脈의 部位, 脈診 및 病症에 對해 解釋하였다.

이에 論者는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의 理致를 窮究하기 爲하여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의 相關性, 氣口脈의 六部定位脈診法과 氣口九道脈의 十二經脈 配屬의 差異點 및 按診法에 關한 研究하여 報告합니다.

診左手九道圖 (診右手內外反此)

前如外者足太陽 (左右彈者 陽蹻)	前部中央直者 手太陽 少陰 (丸丸橫于寸 口者任脈)	前如內者足厥陰 (左右彈者 陽蹻)
中如外者足陽明 (左右彈者帶脈)	三部俱 牢 中部中央直 手心主	三部俱 浮 中如內者足太陰 (左右彈者帶脈)
(從少陽斜至 厥陰者 陰維) 後如外 者足少陽 (左右彈者陰蹻)	直 上 直 下 者 衝 脈 後部中央直者 手陽明 太陰	直 上 直 下 者 督 脈 (從少陰斜至 太陽者 陽維) 後如內 者足少陰 (左右彈者陰蹻)

Fig. 1. 氣口九道脈¹²⁻¹⁴⁾

II. 資 料

《奇經八脈考·氣口九道脈¹⁴⁾》

(原文) 手檢圖曰; 肺爲五臟華蓋, 上以應天, 解理萬物, 主行正氣, 法五行, 應四時, 知五味, 氣口之中, 陰陽交會, 中有五部, 前後, 左右, 各有所主, 上下, 中央, 分爲九道診之則知病邪所在也.

(解釋) 手檢圖에 “肺는 五臟의 華蓋가 되는 것으로 위로 天에 相應하며 萬物을 解理하며 精氣의 運行을 主宰하고 五行의 法則에 따르고 四時에 應하여 五味를 알 수 있고, 氣口에서 陰陽이 交會하고, 또 氣口에는 五部가 있어서 前後, 左右에 各各 主宰하는 곳이 있고 上下中央으로 나누어 九道를 形成하니, 이 九道를 診脈하면 病邪가 있는 곳을 알 수 있다.” 하였다.

<原文> 李瀕湖曰; 氣口一脈 分爲九道 總統十二經并奇經八脈 各出診法 乃岐伯 秘授黃帝之訣也. 扁鵲推之 獨取寸口以決生死. 蓋氣口爲百脈流注朝會之始故也. 三部雖傳 而九道論隱 故奇經八脈 世無人知. 今撰爲圖 并附其說于後 以泄千古之秘藏云.

<解釋> 李時珍은 氣口 一脈을 九道로 나누어서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을 總統하고 各 部分에서 診脈하는 方法은 岐伯이 黃帝에게 비밀리에 傳授한 要訣인 것이다. 扁鵲이 이를 追究하여 오직 寸口만을 取하여 生死를 진단하였다. 大개 氣口는 모든 經脈이 流走하여 朝會하는 始初가 되기 때문이다. 三部脈法은 비록 傳하여졌으나 九道の 脈法은 숨겨져 있었어 奇經의 脈法을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九道脈을 撰述하고 뒤에 解說을 附記하여 千古의 秘藏을 漏泄하고자 한다.

.....

《身經通考·脉說·何謂奇經之脉¹⁶⁾》

(原文) 奇經八脈, 其診又別, 直上直下, 浮則爲督; 牢則爲沖; 緊則任脈; 寸左右彈, 陽蹻可別; 尺左右彈, 陰蹻可別; 關左右彈, 帶脈當決; 尺內斜上至寸

陽維; 尺外斜上至寸陰維.

(解釋) 奇經八脈의 진단에도 또한 구별이 있는데, 直上直下하여 浮한 것은 督脈이고, 牽한 것은 沖脈이고, 緊하면 任脈이고, 左右의 寸脈이 彈하면 陽蹻脈을 결정할 수 있고, 左右의 尺脈이 彈하면 陰蹻脈을 구별할 수 있다. 左右의 關脈이 彈하면 帶脈을 당연히 決할 수 있고, 尺內에서 寸外로 비스듬히(斜診) 진단하는 것은 陽維脈이고, 尺外에서 寸外까지 비스듬히(斜診) 診脈하는 것은 陰維脈이다.

(原文) 按奇經八脈, 在十二經脈之外, 無臟腑與之配偶, 故曰奇. 夫臟腑之脈, 寸, 關, 尺有定位, 浮, 中, 沈有定體, 弦, 鈞, 毛, 石有定形. 此則另爲一脈, 形狀固異而隧道亦殊; 病證不同, 而診治自別.

(解釋) 奇經八脈은 十二經脈 外에 存在하며 臟腑의 配屬없어 奇라 한다. 臟腑의 脈은 寸·關·尺의 定位가 있고, 浮·中·沈의 定體가 있으며, 弦·鈞·毛·石의 定形이 있다. 奇經八脈의 脈은 形象이 항상 다르고, 位置도 特殊하고 病症이 同一하지 않아 診斷과 治療도 自然히 區別된다.

(原文) 督脈爲病, 脊強癱瘓. 任脈爲病, 七疝瘕聚. 衝脈爲病, 逆氣裏急. 帶主帶下, 臍痛精失. 陽蹻寒熱, 目眩僵仆. 陰維心痛, 胸脇刺筑. 陽蹻爲病, 陰緩陽急; 陰蹻爲病, 陽緩陰急; 癱瘓瘕聚, 寒熱恍惚. 八脈脈證, 各有所屬,

(解釋) 督脈이 病이 되면 척추가 뻣뻣해지고 癱瘓이 생긴다. 任脈에 病이 생기면 七疝瘕聚가 나타난다. 沖脈이 病이 되면 逆氣裏急의 증상이 나타나고, 帶脈은 帶下를 주관하고 臍痛과 失精의 症狀가 나타난다. 陽維脈은 寒熱이 나타나고, 目眩僵仆하게 되고, 陰維脈이 病이 되면 心痛, 胸脇에 刺痛이 생긴다. 陽蹻脈에 病이 들면 陰은 緩해지고 陽은 急해지며; 陰蹻脈에 病이 되면 陽은 緩해지고 陰은 急해진다. 八脈의 脈證은 各各 所屬된 바가 있다.

1. 任脈의 脈診

(原文) 前部橫于寸口①九九②者 任脈也. 動苦少腹痛 逆氣搶心 胸拘急不得俯仰. 《脈經》云 寸口脈緊細實長 下至關者 任脈也. 動苦少腹繞臍痛 男子七疝

女子瘦聚③.

(註釋) ① 前部橫于寸口：李¹⁵는 “寸口를 寸, 關, 尺의 三部를 統稱한다” 하였고, 何¹⁷는 “橫을 連橫로 보아 寸部の 浮(外), 中(中), 沈(內)의 三部를 指稱하며 《脈經》의 手檢圖의 內容과 差異가 있다” 하였고, 李¹⁶, 李¹⁸는 “任脈, 衝脈, 督脈은 一源三岐하므로 直上直下 즉 寸, 關, 尺部の 三部에 長透의 意味가 있다” 하였다. 그리고 沈¹⁹은 “任脈의 脈診部位를 寸部로 認識하여 圖(○○○)로 說明하였다.

② 丸丸：李¹⁶는 “緊脈으로 勢斂束의 陰象이다” 하였고, 李¹⁵는 “動하는 모양이며 緊細實長은 寒邪가 盛하고 實한 상태이다” 하였다. 특히 何¹⁷는 “寸口脈이 浮, 中, 沈의 三部에서 脈象이 團結滑動하는 形象이다” 하였다.

③ 動苦少腹繞臍痛 男子七疝 女子瘦聚：沈¹⁹은 “任脈은 腎下胞中에서 起하여 身前の 腹部로 循行하여 陰脈을 承任한다” 하였고, 李¹⁵는 “小腹과 臍部位의 痛症과 陰中切痛의 症狀가 있다” 하였다. 그리고, 李¹⁶는 “任脈은 陰脈이 모이는 處(陰脈之海)으로 七疝症은 前陰과 小腹間에서 發病하며 비록 他經의 部位라도 任脈에 根源을 두지 않는 것이 없고, 대부분 血凝經滯로서 女子의 病이 많고 간혹 下에서 上으로 上衝하는 痛症이 있다.” 하였다.

(解釋) 寸口の 寸部の 浮(外), 中(中), 沈(內)에서 橫으로 丸丸 즉 動하는 形象의 脈이 任脈의 脈象이며, 任脈의 脈象이 搏動하면 少腹痛, 少腹에서 氣가 逆上하여 心部를 찌르는 症과 胸部가 拘急하여 屈伸할 수 없어 괴로워한다. 《脈經》에서는 “寸口脈의 緊細實長한 脈象이 關部에 이르면 任脈의 脈象이며, 이러한 脈象이 搏動하면 少腹과 臍部圍의 痛症으로 苦痛스러우며, 男子는 七疝이 發病하고, 女子는 瘦聚가 發病한다.” 하였다.

《身經通考¹⁶》에서 任脈은 下腹部에서 起始하여 下·中·上焦를 貫通하고, 腹部에 寒邪가 侵襲하여 氣血凝滯로 少腹繞臍痛, 男子七疝, 女子瘦聚의 病症이 나타나므로 氣口脈의 寸·關·尺의 三部에서 收斂과 凝縮의 意味가 있는 緊脈의 脈象으로 解釋하였다.

2. 督脈의 脈診

(原文) 三部俱浮① 直上直下者② 督脈也. 動苦腰

脊強痛 不得俯仰 大人癩小兒癩③.

(註釋) ① 三部俱浮：李¹⁶는 “任脈, 衝脈, 督脈은 一源三岐하며 三脈은 直上直下 즉 寸·關·尺部の 三部에 長透의 意味가 있다” 하여 寸口脈의 寸, 關, 尺部가 모두 浮脈이 나타난다하였다. 沈¹⁹은 圖(○○○)으로 說明하였다.

② 直上直下：何¹⁷는 “直은 不斜하는 것을 意味하며, 즉 寸, 關, 尺部에 浮中沈을 同一한 힘으로 按脈하는 것” 으로 解釋하였다.

③ 動苦腰脊強痛 不得俯仰 大人癩小兒癩：沈¹⁹은 “督脈은 腎下胞中에서 起하여 身後的 背部로 循行하여 陽脈의 總督으로 陽脈의 海가 된다” 하였고, 李¹⁶는 “督脈은 太陽經과 合行하므로 邪가 머무르면 脊強하고 貫脊하며, 督脈과 太陽經은 表를 主하며 督脈은 諸陽의 總督, 太陽經은 諸陽의 長(首)가 되어 風邪類에 傷陽하여 表가 먼저 邪를 받아 머무르면 癩癩이 된다하였고, 간혹 아래에서 위로 上衝하는 痛症이 있다” 하였다

(解釋) 寸, 關, 尺 三部가 모두 浮하면서 直上直下하면 督脈의 脈象이며, 督脈의 脈象이 搏動하면 腰脊強痛으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없고, 大人은 癩證이 발생하고 小兒는 癩證이 발생한다.

3. 衝脈의 脈診

(原文) 三部俱牢① 直上直下者 衝脈也. 動苦胸中有寒疝. 《脈經》曰 脈來中央堅實 徑至關者 衝脈也. 動苦少腹痛 上搶心 有瘦疝 遺溺 女子絕孕②.

(註釋) ① 三部俱牢：李¹⁶는 “衝脈은 十二經의 上, 下, 內, 外의 要衝으로 五臟六腑의 海가 되어 五臟六腑가 모두 稟賦하므로 直上, 直下의 寸, 關, 尺部の 三部가 모두 沈實하다” 하였고, 何¹⁷는 “衝脈은 血海로서 陰實하여 沈實한 脈象이다.” 하였다. 그리고 沈¹⁹은 《脈經》曰 脈來中央堅實 徑至關의 寸, 關部까지로 解釋하여 圖(○○○)로 說明하였다.

② 動苦少腹痛 上搶心 有瘦疝 遺溺 女子絕孕：沈¹⁹은 “衝脈은 腎下胞中에서 起하여 臍를 끼고 直衝上行하므로 諸脈의 要衝이 되므로 十二經의 海가 되며 또 先天精血을 運用하여 위로는 諸陽을 灌注하고 아래로는 諸陰으로 스며들어 足跗까지 이르러 血海라 하며, 病症은 대부분 氣逆하고 裏急한 症狀이다” 하

였고, 李¹⁵⁾는 “衝脈은 臍에서 胸에 까지 이르고, 陽明經과 더불어 前으로 竝行하고, 少陰과 더불어 後로 竝行하며, 少陰과 陽明을 모두 得하므로 “臟腑의 海” 한다. 衝脈의 氣가 不順하고 血이 不和하여 胸腹의 氣가 壅逆하고 裏急한다.” 하였다.

(解釋) 寸, 關, 尺 三部가 모두 牢하면서 直上直下 하면 衝脈의 脈象이며 이러한 脈象이 搏動하면 胸中에 寒疝이 있는 것이다. 《脈經》에서는 “中央에 脈이 堅實하게 搏動하면서 곧 바로 關部에 이르면 衝脈의 脈象이며 이러한 脈象이 搏動하면 少腹에서 心部로 찌르면서 아프며, 寒疝과 遺溺症이 發生하며, 女子는 不妊이 된다.” 하였다.

4. 陽蹻脈의 脈診.

(原文) 前部左右彈者 陽蹻也①. 動苦腰背痛 癱瘓 僵仆 羊鳴 偏枯 頑痺 身體強②.

(註釋) ① 前部左右彈者 陽蹻也 : 李¹⁶⁾는 “陽蹻脈은 足太陽經의 別脈으로 跟中에서 起하여 外踝를 上行하여 身의 左右를 循行하여 風池에서 太陽과 合하여 頭에 到達한다. 그러므로 陽을 候하는 寸部에서 按脈한다” 하였고, 左·右手의 寸部에 彈石搏手의 形象으로 보았다. 何¹⁷⁾는 “左·右는 兩手, 彈은 弦緊彈指이다” 하였고, 李¹⁵⁾는 “陽蹻는 陽絡을 主하므로 寸部에서 按脈하고 彈은 緊脈之象이다” 하였다. 그리고 沈¹⁹⁾은 “兩蹻는 一身의 左右의 陽을 診脈한다” 하여 圖(①D)로 설명하였다.

② 動苦腰背痛 癱瘓 僵仆 羊鳴 偏枯 頑痺 身體強 : 沈¹⁹⁾은 “陽蹻는 足太陽의 別脈으로 身의 左右으로 上行하고 機關의 蹻捷作用을 하며, 肌肉의 上에 있으며 陽脈을 運行하여 六腑와 通貫하고 모든 表部를 主持하므로 病症 또한 表病裏和한다” 하였고, 李¹⁶⁾는 “二蹻의 脈은 一源에서 같이 發하고 一經은 經, 一經은 絡이 되며 病이 經에 있으면 經急絡緩하고 病이 絡에 있으면 經緩絡急한다” 하여 緩急症은 病邪의 所在로 認識하였다. 李¹⁵⁾는 “邪가 陽維脈, 陽蹻脈에 있으면 陽症에 屬하는 癱症이 發病한다” 하였다.

(解釋) 前部에서 左右로 彈手하면 陽蹻脈의 脈象이며, 寸部에서 脈이 搏動하면 腰背痛으로 괴로워하며, 癱瘓으로 僵仆羊鳴하는 症과 偏枯로 頑痺身體強하는 症이 발생한다.

5. 陰蹻脈의 脈診

(原文) 後部左右彈者 陰蹻也①. 動苦癱瘓 寒熱 皮部強痺 少腹痛 里急 腰跨相連痛 男子陰疝 女子漏下不止.

(註釋) ① 後部左右彈者 陰蹻也 : 李¹⁶⁾는 “陰蹻脈은 足少陰經의 別脈으로 跟中에서 起하여 內踝를 上行하여 咽喉에 이르러 衝脈과 交貫하며 陰蹻는 少陰과 合하며 頭部에는 不至한다. 그러므로 陰을 候하는 尺部에서 按脈한다” 하였고 左, 右手의 尺部에 彈石搏手의 形象으로 解釋하였다. 何¹⁷⁾는 “左右는 兩手, 彈은 弦緊彈指이다” 하였고, 李¹⁵⁾는 “陰蹻는 陰絡을 主하므로 尺部에서 按脈하고 彈은 緊脈之象이다” 하였다. 그리고 沈¹⁹⁾은 “陰蹻는 一身의 左右의 陰을 診脈한다” 하여 圖(○D)로 說明하였다.

② 動苦癱瘓 寒熱 皮部強痺 少腹痛 里急 腰跨相連痛 男子陰疝 女子漏下不止 : 沈¹⁹⁾은 “陰蹻는 足少陰의 別脈으로 身의 左右으로 上行하고 機關의 蹻捷作用을 하며 肌肉의 下에 있으며 陰脈을 運行하여 五臟을 通貫하고 身體의 裏部를 主持하며 病症 또한 裏病表和한다” 하였고, 李¹⁶⁾는 “二蹻脈은 一源에서 같이 發하고 一經은 經이 되고 一經은 絡이 되며, 病이 經에 있으면 經急絡緩하고 病이 絡에 있으면 經緩絡急한다” 하였고 緩急症은 病邪의 所在를 認識하였고, 李¹⁵⁾는 “邪가 陰維脈, 陰蹻脈에 있으면 陰症에 屬하는 癱症이 發病한다” 하였다.

(解釋) 後部에서 左右로 彈手하면 陰蹻脈의 脈象이다. 이러한 脈이 搏動하면 癱瘓寒熱, 皮膚強痺, 少腹痛里急, 腰跨相連痛으로 괴로워하고, 男子는 陰疝이, 女子는 漏下不止가 發生한다.

6. 帶脈의 脈診

(原文) 中部左右彈者 帶脈也①. 動苦少腹痛引命門 女子月事不來 絕繼復下 令人無子 男子少腹拘急 或失精也②.

(註釋) ① 中部左右彈者 帶脈也 : 李¹⁶⁾는 “帶脈은 一身의 不上, 不下하는 團身一周하여 束帶하는 形象이다” 하였고, 李¹⁵⁾는 “帶脈은 사람의 腰間에 있다” 하였고, 沈¹⁹⁾은 “帶脈은 모든 脈의 約束을 살필 수 있는 左右手의 關部에서 彈搏한 緊, 弦緊彈指한 脈

을 候할 수 있다” 하였다. 그리고 沈¹⁹⁾은 “帶脈은 모든 脈의 約束을 살필 수 있는 左右手의 關部에서 彈搏한 緊, 弦緊彈指한 脈을 候할 수 있다” 하여 圖(○㉑○)설명하였다.

② 動苦少腹痛引命門 女子月事不來 絕繼復下 令人無子 男子少腹拘急 或失精也 : 李¹⁶⁾는 “帶脈은 季肋下에서 起하여 一身을 團身하는 허리 띠와 같고 臟腑, 十二經絡 및 奇經八脈은 모두 帶脈을 지나간다. 그러므로 飲食不絶, 勞欲從傷하여 濕熱下流, 邪火內鬱, 外或風入, 胞宮邪凝하여 臍腹帶脈이 不任하고 客邪하면 五色의 帶下가 淋漓不止하며 兼하여 腰腹痠痛, 足膝委軟, 頭目暈眩, 經脈參差, 或寒熱往來, 容顏枯瘁한다” 하였고, 沈¹⁹⁾은 “衝任二脈은 腹脇을 循行하고 臍旁을 끼고 氣街로 傳流하여 帶脈에 屬하며 督脈에 絡하고 衝任督三脈은 同起異行하고 一源三岐하여 帶脈에 三脈은 絡한다. 모든 脈은 上下로 往來하면서 帶脈之間에 遺熱하고 客熱鬱抑하여 白物淫溢하며 男子는 隨洩而下하고 女子는 綿綿而下는 帶下症狀은 濕熱이 過하여 發病한다” 하였고, 李¹⁶⁾는 《靈樞·經別》에서 足少陰經別의 當十四椎에서 出屬帶脈하며 腎은 藏精을 主管하고 帶脈은 腰膂를 帶固하여 虛하면 不能藏 不能固하여 臍痛精失의 症狀이 나타난다” 하였다.

(解釋) 中部에서 左右로 彈手하면 帶脈의 脈象이다. 이러한 脈이 搏動하면 少腹에서 命門穴 部位로 당기면서 아픈 것으로 괴로워하며, 女子는 月經이 斷絶되었다가 이어서 다시 오고 또 不妊症도 될 수 있으며, 男子는 少腹拘急이나 失精이 발생한다.

7. 陽維脈의 脈診

(原文) 從少陰斜至太陽者 陽維也①. 動苦癱仆 羊鳴 手足相引 甚者失音不能言 肌肉痺痺②.

(註釋) ① 從少陰斜至太陽者 陽維也 : 《脈經·手檢圖》의 氣口九道脈의 部位를 《奇經八脈考 및 奇經八脈考校注》, 《醫宗必讀》은 寸, 關, 尺의 部位를 水平的 區分 즉 寸, 關, 尺部에서 內, 中, 外로 九等分하여 區分하였고, 李¹⁵⁾는 “水平的 區分에서 左手의 尺部의 足少陰에서 寸部 中央의 手太陽에서 斜診한다” 하였다. 《身經通考》, 《難病源流犀燭》은 《脈經·手檢圖》의 寸, 關, 尺의 部位를 浮, 中, 沈部位로 區分하여 外, 中, 內의 《難經》의 寸口脈의 三

部九侯로 解釋하였고, 《醫編¹⁷⁾》에서는 《脈經·手檢圖》의 意味를 水平的 內外的 意味로 본 것을 寸, 關, 尺部의 外, 中, 內를 다시 浮, 中, 沈으로 垂直的 意味로 解釋하여 (圖.1)로 說明하고, “足少陰의 尺部의 沈部에서 足太陽의 寸部의 浮部로 按診하며 始沈終浮한다” 하였다.

李¹⁶⁾는 “陽維脈은 外踝로 부터 肩으로 出하고 腦에 到達하고 陽은 內部에서 外部로 出하므로 尺部의 足少陰에서 寸部의 足太陽으로 斜診한다” 하였고, 葉²⁾은 “陽을 얻어 매는 것은 반드시 少陰에서 起始하며, 陰은 陽의 뿌리가 되는 緣由이다” 하였다. 沈¹⁹⁾은 “陽維脈은 一身의 表를 診候하며 寸部는 陽部이고 外(밖 즉 手拇指方向)側도 陽部이므로 按脈하는 것으로 說明하였고, 沈¹⁹⁾은 “陽維脈은 一身의 表를 診候하며 寸部는 陽部이고 外(밖 즉 手拇指方向)側도 陽部이므로 按脈하는 것을 圖(○㉒○)로 說明하였다.

한편, 李¹⁸⁾, 李¹⁸⁾는 “氣口九道脈의 六經 診脈部位와는 다른 左手의 足少陰腎經의 部位에서 手太陽小腸經의 部位로 斜診한다” 하였고, 林²⁰⁾은 《脈經》, 《醫宗必讀》 및 《脈決彙辨》의 內容을 同一하게 引用하였다.

② 動苦癱仆 羊鳴 手足相引 甚者失音不能言 肌肉痺痺 : 沈¹⁹⁾은 “陽維脈은 諸陽之會에서 起하여 陽 즉 表를 循行하는 衛氣를 維絡하며 陽維가 受邪하면 表部에 病症이 있다” 하였고, 李¹⁶⁾는 “陽維脈은 一身의 陽을 維絡하므로 頭目·手足·頸項·肩背의 諸陽에 脈이 到達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脈이 不營하여 頭目を 維絡하지 못하면 眩暈하고, 頸項·肩背를 維絡하지 못하면 嚙(僵)하게 되고, 手足을 維絡하지 못하면 仆倒한다” 하였다.

(解釋) 少陰部位에서 太陽部位로 斜行하는 것은 陽維脈의 脈象이다. 陽維脈의 脈象이 搏動하면 癱仆 羊鳴과 手足相引으로 苦痛스럽고, 甚하면 失音證이 되어 말을 하지 못하고 肌肉이 痺癢하게 된다.

8. 陰維脈의 脈診

(原文) 從少陽斜至厥陰者 陰維也①. 動苦癱病 僵仆 羊鳴 失音 肌肉痺痺 汗出惡風②.

(註釋) ① 從少陽斜至厥陰者 陰維也 : 李¹⁶⁾는 “陰維脈은 內踝로 부터 腹部로 入하여 咽喉에 到達하

고, 陰은 外部에서 內部로 入하므로 尺部의 足少陽에서 寸部의 足厥陰으로 斜診한다” 하였고, 何¹⁷⁾는 “足少陽의 尺部의 浮部에서 足厥陰의 寸部의 沈部로 按診하며 始浮從沈한다” 하였다. 그리고 葉²⁾은 “陰을 엮어 매는 것은 반드시 少陽에서 起始하며, 陽은 陰으로 歸屬되는 緣由이다” 하였고, 沈¹⁹⁾은 “陰維脈은 一身의 裏를 診候하며 寸部는 陽部位이며 그러나 內(內 즉 手小指方向)側은 陰部位이므로 寸部의 內部로 斜診은 陽에 根本은 있으나 陰으로 歸還하는 것을 意味한다” 하여 圖(○●○●○)로 說明하였다.

한편, 李^{15,18)}는 “氣口九道脈의 六經 診脈部位와는 다른 右手의 手少陽三焦의 部位에서 手厥陰心包絡의 部位로 斜診한다” 하였고, 林²⁰⁾은 《脈經》, 《醫宗必讀》 및 《脈訣彙辨》의 內容을 同一하게 引用하였다.

② 動苦癲癩 僵仆 羊鳴 失音 肌肉痺痒 汗出惡風 : 沈¹⁹⁾은 “陰維脈은 陰이 交叉하는 곳에서 起하여 陰 즉 裏를 循行하는 營氣를 維絡하며 陰維가 受邪하면 裏部에 病症이 있다” 하였고, 李¹⁶⁾는 “陰維脈은 一身의 陰을 維絡하므로 胸腹의 모든 陰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脈이 不營하여 胸脇腹을 維絡하지 못하면 胸腹部에 動築하고 刺痛한다” 하였다.

(解釋) 少陽部位에서 厥陰部位로 斜行하는 것은 陰維脈의 脈象이다. 陰維脈의 脈象이 搏動하면 僵仆 羊鳴失音하고 肌肉이 痺癢하여 汗出惡風하게 된다.

III. 本 論

1. 《脈經·手檢圖二十一部》의 二十一部

《手檢圖》 二十一部의 內容은 十二經 中 三焦經을 除去한 十一脈과 奇經八脈의 八脈 및 陽絡(來小時大, 暫小暫大), 陰絡(來大時小, 暫大暫小)의 二絡을 合하여 二十一部를 形成하였다.

《手檢圖》의 圖中에는 《脈經·手檢圖二十一部》의 內容 中 陽絡, 陰絡의 表示가 缺如되어 있다. 그 理由를 圖에는 脈의 位置는 圖中에 表示가 不可能하다. 《脈經·手檢圖二十一部》의 原文에는 “前, 後, 中, 外, 內” 등 位置의 範疇에 屬하며, 脈의 力量의 變化는 圖中에 表示가 困難하다.

《脈經·卷十·手檢圖》의 陽絡의 來小時大(暫小

暫大), 陰絡의 來大時小(暫大暫小)는 脈力變化의 範疇에 屬하는 陽絡, 陰絡은 表示가 困難하여 手檢圖에는 十九部만 表示하였다. 手檢圖에 比록 脈力의 變化를 나타내는 陽絡, 陰絡을 表示가 없어도 “二十一數” 에 附屬한다.

《手檢圖》의 “從少陰之太陽者” 는 陽維脈의 脈診部位를 나타내고 陽絡의 來小時大(暫小暫大)의 脈象은 人體의 六陽經의 絡脈을 統括하고 六合 中 乾에 該當하는 陽維脈의 脈象으로 생각되며, 何¹⁷⁾는 “始沈終浮” 한다하였다. 《手檢圖》의 “從少陽之厥陰者” 는 陰維脈의 脈診部位의 나타내고 陰絡의 來大時小(暫大暫小)는 人體의 六陰經의 絡脈을 總括하고 六合 中 坤에 該當하는 陰維脈의 脈象으로 생각되며, 何¹⁷⁾는 “始浮終沈” 한다하였다.

한편 《手檢圖》에는 手·足三陰三陽의 表裏配合에 缺點은 없다. 그러나 手厥陰心包 즉 手心主의 表裏經脈인 手少陽三焦經의 單獨으로 相互配合이 缺如되어 있고, 《手檢圖》 形成의 制圖 當時에는 《靈樞·本臟》 “腎合三焦, 膀胱” 의 理論에 根據하여 三焦는 腎과 膀胱의 部位에서 診脈하였다. 그러므로 三焦는 省略하고 二十一의 數가 形成되었다.

한편 十一經脈의 體系인 《手檢圖》에 脈象의 變動을 意味하는 “動” 字를 使用하여 經脈病候를 記載한 것과 十二經脈 體系의 理論的 背景이 되는 《難經·二十五難²⁾》의 心主別脈(心包經)과 三焦經의 表裏經脈의 形性 및 《靈樞·經脈》의 十二經脈 體系와 “是動則病” 의 “動” 字를 比較하면 《手檢圖》의 經脈學說은 馬王堆의 古代灸經과 《靈樞·經脈》 經脈體系의 中間段階로 推論할 수 있다.

2.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의 經脈病候

馬王堆 出土 醫書 中 《陰陽十一脈灸經》의 經脈病候에는 各各 經脈의 診脈部位(經脈脈口 - 診斷處이자 治療穴이며 經脈名을 穴名으로 하는 經脈穴. 예. 太淵穴- 手太陰穴) 를 診脈하여 脈象이 다르게 나타나 것을 “動” 字로 處理하고 經脈病候를 記述하고 있다.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의 古代 灸經의 脈診法을 記述하고 있는 《脈法²¹⁾》 “他脈盈, 此獨虛, 則主病. 他脈滑, 此獨澀, 則主病. 他脈靜, 此獨動, 則主病. …… 是主動, 疾則病, 此所以論有過之脈也” 하여 餘他の 脈診處와 比較하여 變動을 意味하는 “動” 字를 利用하여 說明하고 있으며,

脈診病候와 經脈病候는 一致한다.

經脈病候는 “是動” “所生”으로 區分되며 “是動”은 相應하는 經脈脈口 의 脈診病候이며, “所生病”은 經脈概念이 形成된 後에 臨床過程에서 經脈循行部位로 分類한 病症이다. 絡脈病候도 各 絡脈의 相應하는 診絡處(各 絡脈의 絡穴處)의 脈診病候이다²²⁾.

黃²³⁾은 “十二經脈, 十二絡脈의 病候는 經脈脈口, 絡脈의 診絡處(《靈樞·經脈》의 絡脈의 絡穴部位. 診絡處이자 治療穴)의 脈口診斷 - 診脈病候 - 經脈病候의 形式으로 되어 있다. 《脈經》 所在의 衝脈病候는 비록 脈診病候이나 寸口脈의 病候이며, 衝脈脈口(氣沖脈의 脈診病候)穴의 脈診病候가 아니며, 奇經八脈의 循行路線과 病候의 關係는 經脈, 絡脈의 循行과 病候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였다.

그리고 《脈經·卷十·手檢圖》의 氣口九道脈에서도 十二經脈 및 奇經八脈의 病症에 “動” 字를 利用하여 病症을 記述하고 있으며, 《靈樞·經脈》 “是動”의 病症과 氣口九道脈의 十二經脈 및 奇經八脈의 病症과는 同一하지 않으며, 이는 古代의 經脈을 研究한 多様な 學派가 存在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對하여 現存하는 古代의 經脈文獻을 通한 研究가 必要하다고 思料된다.

1) 《靈樞·經脈》과 《手檢圖》의 病症의 差異

《手檢圖》의 三陰三陽의 病症은 《靈樞·經脈》의 內容과 同一하지 않다. 예로 足陽明經病을 보면, 《手檢圖》의 “動 苦頭痛, 面積熱, 大便不利, 腸鳴, 不能食, 足脛痺, ……” 등이 轉載되어 있고, 그리고 《靈樞·經脈篇》 “…… 是 動 則 病 洒洒振寒,

善呻數欠, 顏黑. 病至則惡人與火, 聞木音則惕然而驚, 心欲動, 獨閉戶塞牖而處. 甚則欲上高而歌, 棄衣而走, 賁響腹脹 ……” 등이 記載되어 있으며, 其他의 各經을 比較하여도 《手檢圖》와 《靈樞·經脈》에는 相當한 差異가 있다.

예로 足陽明病을 보면 《靈樞·經脈》에는 “是 動 則 病 …… 病 至 則 惡 人 與 火, 聞 木 音 則 惕 然 而 驚, 心 欲 動, 獨 閉 戶 塞 牖 而 處. 甚 則 欲 上 高 而 歌, 棄 衣 而 走.” 의 情神領域의 病症과 “魘衄, 口喎唇眳, 頸腫喉痹, 大腹水腫, 膝臏腫痛, 循膺, 乳, 氣街, 股, 伏兔, 胛外廉, 足跗上皆痛, 中趾不用”의 身體의 頭, 胸腹部 및 下肢의 前面部의 疾患이 主를 이루고 있으며, 消化器 系統의 病症이 不足하다.

그러나 《手檢圖》에는 “動 苦頭痛, 面積熱, 大便不利, 腸鳴, 不能食, 足脛痺” 하여 古代 灸經의 “是 動 則 病”의 經脈病候에서 《靈樞·經脈》의 “是 動 則 病”으로 演變되는 過程의 經脈病候에서 精神科 領域을 縮小하고 臨床에서 不足한 消化器 系統의 疾患을 補完하여 簡略化한 것으로 推論할 수 있다. 또 奇經八脈을 研究한 醫家들은 “是 動” “所 生 病” 등으 로 區分한 經脈病候는 臨床에서 適用의 困難 및 煩雜한 것을 十二經脈의 病症을 簡略化하고 漏落된 症候를 補充하였다고 思料된다.

그리고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에서는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을 寸, 關, 尺部의 浮, 中, 沈按의 九道에 配屬하여 正經과 奇經의 相互 聯貫性이 含蓄되어 있다. 《奇經八脈考¹⁴⁾》에서 “氣口一脈 分爲九道 總統十二經并奇經八脈” 하여 氣口九道脈에서 十二正經 및 奇經八脈의 病症을 同時에 脈診을 運用할 수 있는 診斷學的인 意義를 說明하고 있다. (Fig. 1 參考)

Table 1. 《脈經·手檢圖》와 《靈樞·經脈》의 足陽明經 病證 比較

經脈名	《脈經·手檢圖》	《靈樞·經脈》
足陽明經	中部如外者, 足陽明胃也. 動苦頭痛, 面積熱, 大便不利, 腸鳴, 不能食, 足脛痺,	胃足陽明之脈 …… 是動則病 洒洒振寒, 善呻數欠, 顏黑. 病至則惡人與火, 聞木音則惕然而驚, 心欲動, 獨閉戶塞牖而處. 甚則欲上高而歌, 棄衣而走, 賁響腹脹. 是主血所生病者, 狂, 虐, 溫飲 汗出, 魘衄, 口喎唇眳, 頸腫喉痹, 大腹水腫, 膝臏腫痛, 循膺, 乳, 氣街, 股, 伏兔, 胛外廉, 足跗上皆痛, 中趾不用.
脈診方法	氣口九道脈	人迎氣口脈診

3. 氣口九道脈의 部位 및 方法

1) 氣口九道脈의 內·中·外部의 意味

《內經》에서 “內, 外”의 문제는 各家의 注解는 不同하며, 《內經》所載의 內, 外와 《脈經·卷十》所載의 “內, 外”의 含意는 一致하지 않으며, 羅¹³⁾는 “《脈經·卷十·手檢圖》所載의 ‘內, 外’에 對하여 內·中·外를 平面的인 左右로 解釋하였지만, ‘浮·中·沈’의 說도 있다.” 하였다.

《脈經·手檢圖》氣口九道脈의 部位를 《醫宗必讀¹⁵⁾》, 《脈經校釋¹²⁾》 및 《奇經八脈考校注¹⁴⁾》는 寸, 關, 尺의 部位를 水平的 區分 즉 寸, 關, 尺部에서 內(向小指之一側), 中, 外(向大指之一側)로 九等分하여 區分하였고, 《身經通考¹⁶⁾》, 《雜病源流犀燭¹⁹⁾》은 《脈經·手檢圖》의 寸, 關, 尺部에서 浮, 中, 沈按의 垂直的으로 九等分하였고, 《醫碯¹⁷⁾》에서는 《脈經·手檢圖》의 意味를 寸, 關, 尺部の 外, 中, 內를 浮, 中, 沈按의 氣口脈 三部九候診으로 解釋하였다(Fig. 2 參考).

한편 《難經》에서 古代의 여러 脈診方法을 寸, 關, 尺部の 六部定位脈診法의 氣口脈으로 確立하는 過程에서 《素問·三部九候論》의 三部九候診은 《難

經·十八難²⁾》 “…… 脈有三部九候, 各何所主之? 然: 三部者, 寸關尺也. 九候者, 浮中沈也. ……” 하여 寸口脈의 寸, 關, 尺部에 浮, 中, 沈按하는 氣口脈의 三部九候診으로 收容되었다.

氣口九道脈은 氣口脈을 寸, 關, 尺部の 浮, 中, 沈按으로 九道로 區分한 《醫碯》의 解說이 奇經八脈의 脈診法을 氣口脈의 按診法으로 記述한 《脈經·卷十·手檢圖》의 原義에 附合한다고 思料된다

2) 氣口九道脈에서의 陽維脈, 陰維脈의 脈診方法의 差異

陽維脈의 脈診部位를 《脈經·手檢圖》에서는 “從少陰斜至太陽者 陽維也” 하였는데 《奇經八脈考》, 《醫宗必讀¹⁵⁾》, 《奇經八脈考校注¹⁴⁾》은 寸, 關, 尺部를 水平的 區分 즉 寸, 關, 尺部에서 內, 中, 外로 九等分하여 區分하였고, 《身經通考¹⁶⁾》, 《醫碯¹⁷⁾》은 《脈經·手檢圖》의 寸, 關, 尺部를 浮, 中, 沈按으로 垂直的으로 九等分하여 區分하였고, 《雜病源流犀燭》에서는 《難經》의 寸口脈의 三部九候로 解釋하여 圖(○○○)로 說明하였다.

그리고, 《身經通考¹⁶⁾》, 《醫碯¹⁷⁾》에서는 陽維脈은 外踝로 부터 肩으로 出하고 腦에 到達하고 陽은 內部에서 外部로 出하므로 尺部の 足少陰에서 寸部の 足太陽으로 斜診하였고, 《雜病源流犀燭¹⁹⁾》에서 陽維脈은 一身의 表를 候하며, 寸部에서 陽部이고, 外側(手拇指方向)도 陽部이므로 按脈하는 것을 圖(○○○)로 說明하였다.

한편, 《醫宗必讀¹⁵⁾》, 《脈訣彙辨¹⁸⁾》에서는 氣口九道脈의 六經 診脈部位와는 다른 左手의 足少陰腎經의 部位에서 手太陽小腸經의 部位로 斜診한다하여 氣口脈의 臟腑配屬의 方法을 利用하여 理解를 쉽게 하였다.

陰維脈의 脈診部位를 《脈經·手檢圖》에서는 “從少陽斜至厥陰者 陰維也” 하였는데 《身經通考¹⁶⁾》, 《醫碯¹⁷⁾》에서 陰維脈은 內踝로 부터 腹部로 入하여 咽喉에 到達하고, 陰은 外部에서 內部로 入하므로 尺部 浮按의 足少陽에서 寸部 沈按의 足厥陰으로 斜診한다하였고, 《雜病源流犀燭¹⁹⁾》에서는 陰維脈은 一身의 裏를 候하며, 寸部는 陽部位이며, 內側(手小指方向)은 陰部位이므로 寸部の 沈按으로의 斜診은 陽에 根本은 있으나 陰으로 歸還하는 것을 意味한다 하여 圖(○○○)로 說明하였다.

한편, 《醫宗必讀¹⁵⁾》, 《脈訣彙辨¹⁸⁾》 등은 氣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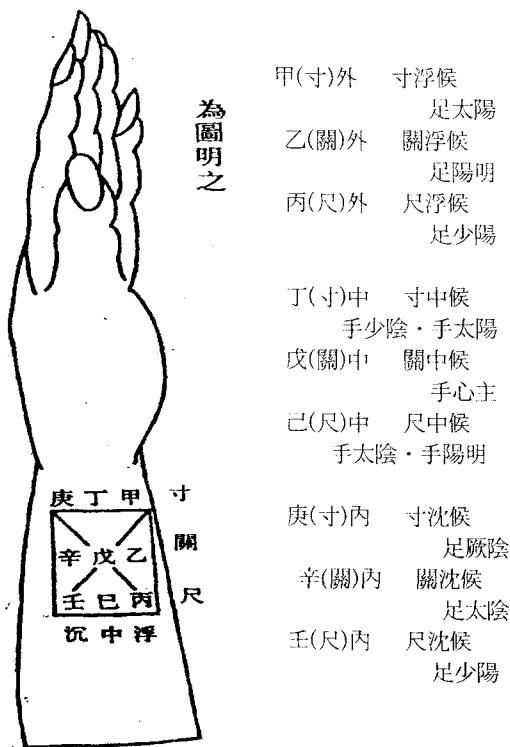


Fig. 2. 《醫碯·氣口九道脈¹⁷⁾》

九道脈의 六經 診脈部位와는 다른 右手의 手少陽三焦의 部位에서 手厥陰心包絡의 部位로 斜診한다하여 氣口脈의 臟腑配屬의 方法을 利用하여 理解를 쉽게 하였다.

以上을 보면, 氣口九道脈에서의 陰·陽維脈의 脈診方法을 醫家들은 三方法을 提示하였다.

一 ; 《奇經八脈考》, 《奇經八脈考校注》에서는 氣口九道脈의 內, 中, 外를 水平的으로 區分하여 手大指方向은 外, 手小指方向을 內로 解釋하여 尺內의 足少陰에서 寸外의 足太陽으로 斜診하는 陽維脈, 尺外의 足少陽에서 寸內의 足厥陰으로 斜診하는 陰維脈의 脈診方法을 提示하였다. 이는 《脉經》以後 最初로 氣口九道脈의 陽維脈·陰維脈의 脈診 方法論을 提示하였다.

二 ; 《身經通考》, 《難病源流犀燭》 및 《醫編》에서는 氣口九道脈의 內·中·外를 垂直的으로 區分하여 內는 浮·中·沈의 沈按, 外는 浮按으로 解釋하여 尺部 沈按의 足少陰에서 寸部 浮按의 足太陽으로 斜診하는 陽維脈, 尺部 浮按의 足少陽에서 寸部 沈按의 足厥陰으로 斜診하는 陰維脈의 脈診法을 提示하였다. 이는 《難經》의 寸·關·尺部の 浮·中·沈按의 氣口脈 三部九候診²⁰⁾의 影響으로 思料되며, 《難經》 氣口脈의 六部定位脈診法과 部位는 同一하지만 經脈配屬 및 按診法은 差異가 있다.

三 ; 《醫宗必讀》, 《脉訣彙辨》에서는 氣口九道脈의 六經 診脈部位와는 다른 左手의 足少陰腎經의 部位에서 手太陽小腸經의 部位로 斜診은 陽維脈, 右手의 手少陽三焦의 部位에서 手厥陰心包絡의 部位로 斜診은 陰維脈의 脈診法을 提示하였다. 이는 氣口脈의 六部定位脈診法의 臟腑配屬의 方法을 利用하여 理解를 쉽게 하였고, 氣口脈에서도 氣口九道脈의 運用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提示하였다.

또 氣口九道脈은 “中部中央直 手心主” 를 (圖. 1 參照) 보면 《素問·脉要精微論》의 臟腑分配의 影響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²⁴⁾, 《四診抉微》에서 臆中을 手心主로 보았고²⁰⁾, 《脉經·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脉第二¹²⁾》에서 左寸部를 心臟 및 手厥陰經이라 하였고, 張²⁴⁾ 右寸部를 臆中으로 定位하였다.

4. 《手檢圖》 氣口九道脈과 寸口脈의 十二經脈 配屬의 差異

《手檢圖》의 前, 中, 後, 外, 內部の 各 部分의 手足三陰三陽의 分配는 《內經》 所在의 氣口脈의 臟腑配屬 및 여러 醫家들의 流轉資料와도 差異가 있다. 《內經》에서는 左寸에서는 “外以候心, 內以候臆中”, 右寸에서는 “外以候肺, 內以候胸中” 하였다. 그러나 《手檢圖》에는 左右의 區分이 없고, 寸部에서는 “外以候足太陽, 內以候足厥陰. 內外中間, 以候手少陰與手太陽” 하였다.

《內經》에서는 左關에서는 “外以候肝, 內以候鬲”, 右關에서는 “外以候胃, 內以候脾” 하였고, 《手檢圖》에서는 左右의 區分이 없고, 關部에서는 “外以候足陽明, 內以候足太陰, 內外中間以候手心主” 하였고, 《內經》에서 尺部는 “外以候腎, 裏以候腹” 하였고, 手檢圖에서 尺部 “外以候足少陽, 內以候足少陰, 內外中間以候手太陰與手陽明” 하였다.

한편, 《內經》과 《脈經》의 氣口脈 各部의 臟腑配屬의 差異가 많고, 後世 여러 醫家의 寸, 關, 尺部에서의 左右手 臟腑配屬 즉 心, 肝, 腎, 肺, 脾, 命門…… 과 手檢圖의 所載의 十二經脈 및 臟腑分配의 配屬도 差異가 많으며, 向後 이에 對한 研究가 必要하다.

古代의 여러 脈診方法이 氣口脈으로 併合되는 過程에 十二經脈의 配屬方法의 差異가 있는 氣口九道脈을 함께 《難經》에 記述하면 理論的인 矛盾이 發生할 수 있어 《難經》을 著作한 醫家들은 氣口九道脈에 十二經脈의 配屬은 排除하고, 氣口九道脈의 脈診方法論이 되는 <十八難²⁾> “…… 脈有三部九候, 各何所主之? 然: 三部者, 寸關尺也. 九候者, 浮中沈也. ……” 하여 《素問·三部九候論》의 三部九候診이 寸口脈의 寸, 關, 尺部에 浮, 中, 沈按하는 ‘寸口脈의 三部九候診’ 으로 收容하는 方法만을 提示하였고, 氣口九道脈은 最初로 《脈經·卷十·手檢圖》에 轉載되어 있다. 그리고 《奇經八脈考¹⁴⁾》에서 “…… 蓋氣口爲百脈流注朝會之始故也. 三部雖傳 而九道論隱 故奇經八脈 世無人知. 今撰爲圖 并附其說于後 以泄千古之秘藏云. ……” 하여 氣口九道脈의 脈診法이 없는 奇經八脈은 폭넓게 活用되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 《難經》 氣口脈의 脈診法으로 古代의 脈診의 方法들을 受容할 當時에 奇經八脈의 理論은 成立되어 《難經·二十七難 - 二十九難》에 記載하였고, 氣口九道脈은 確立되지 않아 《難經》에 記載되지 않았다고도 推論해 볼 수도 있다.

IV. 考 察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의 灸經과 《脉法》, 《陰陽脈死候》의 脈診 및 診斷書에서 古代 經脈學說의 形成과 發達過程 및 經脈과 脈診의 相關性에 關한 많은 疑問을 解消할 수 있었다. 그러나 奇經八脈에 關한 《素問》 《靈樞》와 《難經》 以前의 資料는 未備하여 奇經八脈 및 氣口九道脈의 淵源에 對한 研究가 充分하지 않다.

《史記·扁鵲傳》에 扁鵲이 B.C 5C 頃에 스승 長桑君에게 一群의 禁方書를 傳受한 記錄과 《史記·倉公傳》에 倉公이 B.C 2C 頃 陽慶에게 《黃帝扁鵲之脈書》 《上下經》 《奇咳術》²⁵⁾ 《揆度》 《藥論》 및 《石神》 등의 10 種의 醫學書籍을 받아 古代醫學을 繼承한 記錄이 있다.²⁶⁾

古代의 醫學書籍 중 《奇咳術》에 對하여 余²⁶⁻²⁷⁾는 “《奇咳術》이 《奇恒》이며²⁵⁾, 《素問》의 <疏五過論> <病能論> <方盛衰論> <玉版論要>에는 《奇咳》의 書名과 內容의 片鱗을 볼 수 있으며, …… 《奇恒》은 診脈으로 四時에 맞지 않게 죽는 特異한 疾病을 診斷하는 古代醫學의 脈書로 볼 수 있다.” 하였고, 沈²⁸⁾은 “《難經》과 《奇經八脈考》의 奇經八脈 醫論은 古代에 陽慶이 倉公에게 傳受한 《奇咳術》이며, 醫家들은 …… 奇經八脈에 對한 醫論을 熟知하여야 한다.” 하였다.

그리고 曹^{25,29)}는 “醫學의 起源은 前代의 醫學經驗을 繼承한 扁鵲부터 始作되어 倉公 以後에 여러 分派가 생겼다” 하였고, 金²⁵⁾, 余²⁷⁾ 등은 《史記·扁鵲倉公傳》 “齊北王 …… 臣意教以 經脈高下及 奇絡法 當論俞所居及 氣當上下出入邪(正)逆順 以宜鑿針 砭灸處 ……” 에서 《奇絡法》이 奇經八脈의 雛形으로 推論하였고, 金²⁵⁾과 何³⁰⁾는 “《難經》을 倉公의 醫學을 繼承한 醫家의 著作” 으로 보았고, 또 奇經八脈의 醫論은 《難經》에서 整體적으로 立論되어 現在까지 遵用되고 있다.

奇經八脈 中에서 《素問》과 《靈樞》에는 任脈, 督脈, 衝脈, 帶脈, 陰蹻脈 및 陽蹻脈 즉 六個가 記述되어 있고, 《素問·骨空論》에서는 奇經八脈의 病症과 路線이 있으며, 人體의 表裏 絡脈의 機能을 統括하는 陽維脈, 陰維脈에 關한 內容은 없다. 그리고 《難經》의 <二十七難> 奇經八脈의 作用과 名稱, <二十八難>의 循行 및 <二十九難>의 病候 등이 記

載되어 있고 《難經》에서 陽維脈, 陰維脈을 포함하는 “奇經八脈”의 名稱, 作用, 循行 및 病候등이 具備되어 奇經八脈은 理論的 體系를 갖추게 되었다¹⁻²⁾.

奇經八脈의 意義에 關하여 李¹⁴⁾는 “奇經八脈은 陰陽의 昇降을 總括하여 管掌하고 陽維脈은 上, 陰維脈은 下, 陽蹻脈은 東, 陰蹻脈은 西, 督脈은 南, 衝脈은 中, 任脈은 北, 帶脈은 總束하는 上下四方의 六合의 空間的인 意味와 機能的인 意味가 있다” 하였고, 李¹⁸⁾는 “奇經八脈은 十二經脈을 總持하고 病機를 探求하여 고기를 잡는 그물의 役割을 하는 重要한 意義가 있다” 하였다.

奇經八脈은 生理的인 方面에서 “正經의 脈氣가 充盈하면 奇經으로 流入하고 正經의 脈氣가 虧虛하면 資助하여 正經을 溝渠로 奇經을 湖澤에 比喻하였고^{4,14)}”, 또 病理的인 方面에서 “奇經八脈의 病은 獨立的으로 發病하지 않고 正經과 絡脈의 病이 流入되어 發顯되고, 傳經이나 流走에 依한 傳變이 없고 忽然히 發病하고 忽然히 潛伏한다^{6,31)}.” 하였다.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은 《素問》 《靈樞》에는 記述된 곳이 없으며, 《難經》 <一難>에서 <二十二難>의 脈學篇에는 古代의 多樣한 脈診法이 寸·關·尺部의 六部定位脈診法의 氣口脈으로 受用되는 緣由를 論述하고 있지만, 奇經八脈의 脈診法에 關한 說明 혹 言及이 없고, 最初로 《脈經·卷十·手檢圖》¹²⁾에 編纂되어 있다.

氣口九道脈은 《難經·十八難》에서 처음 創案된 ‘寸口脈의 三部九候診’을 運用한 것과 《脈經·卷十·手檢圖》의 十二經脈 및 奇經八脈의 經脈病候는 《靈樞·經脈》의 病候와 同一하지 않고, 《難經》의 奇經八脈의 病候보다 詳細한 것을 考察해 보면 氣口九道脈은 《難經》 以後에 創案되어 廣範하게 流轉되지는 않았고, 李¹⁴⁾는 “…… 蓋氣口爲百脈流注 朝會之始故也. 三部雖傳 而九道論隱 故奇經八脈 世無人知. 今撰爲圖 并附其說于後 以泄千古之秘藏云. ……” 하여 醫家들이 奇經八脈의 診脈法이 알지 못하여 奇經八脈이 폭넓게 臨床에 活用되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明代의 《奇經八脈考》 《醫宗必讀》 및 《脉如》 등에 氣口九道脈의 部位, 病症 및 脈診方法에 關하여 記述되어 있고, 清代의 《身經通考》 《醫編》 《雜病源流犀燭》 및 《四診抉微》 등에 氣口九道脈의 部位, 脈診 및 病症에 對하여 새로운 解釋을 하였다.

氣口九道脈에 對하여 李¹⁴⁾는 “氣口에서 陰陽이 交

會하고 …… 九道を 形成하며, 九道を 診脈하면 病邪의 所在를 알 수 있다.” 하였고, 李¹⁶⁾는 “氣口九道脈의 脈象은 病이 있으면 나타나고 病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하였고, 沈¹⁹⁾은 “奇經八脈에 關한 病은 《奇經八脈考》의 氣口九道脈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하여 氣口九道脈의 診斷學的인 意義에 對하여 說明하고 있다.

그리고 黃³²⁾은 “氣口九道脈 또한 手太陰肺經에서 按診하며, 臟腑의 脈을 按診하여 診斷할 수 있으면 氣口九道脈을 洞察할 수 있다.” 하여 《難經》 氣口脈의 六部定位脈診法에서도 奇經八脈의 病症을 診斷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提示하였다.

十二正經의 氣口脈診과 奇經八脈의 氣口九道脈의 差異點에 關하여 李¹⁸⁾는 “臟腑의 脈은 寸·關·尺의 一定한 位置가 있고, 浮·中·沈의 一定한 體가 있으며, 弦·鈞·毛·石의 一定한 形態가 있다. 奇經八脈은 臟腑와 配屬되는 일이 없고, 十二經脈의 外에 存在하여 十二經脈을 總持한다” 하였고, 李¹⁶⁾는 “氣口九道脈은 形象이 항상 다르고 位置도 특수하고 病症이 같지 않으며 診斷과 治療도 自然히 區別되며, …… 邪氣가 있는 實한 形象으로 나타난다” 하였다.

氣口九道脈의 《脈經·卷十·手檢圖》의 ‘內·外’의 含意에 對하여 羅¹³⁾는 “《脈經·卷十》 所載의 ‘內, 外’ 에 對하여 內·中·外를 平面的인 左右로 解釋하였지만, ‘浮·中·沈’ 의 說도 있다.” 하였고, 《奇經八脈考》, 《醫宗必讀》, 《奇經八脈考校注》에서는 寸, 關, 尺의 部位를 水平的 區分 즉 寸, 關, 尺部에서 內, 中, 外로 九道로 區分하였고, 《身經通考》, 《雜病源流犀燭》에서는 《脈經·手檢圖》의 內·中·外를 寸, 關, 尺部의 浮, 中, 沈按으로 垂直的 意味의 九道로 解釋하였다.

氣口九道脈의 按診法은 《素問·三部九候論》의 身體 上·中·下部의 天·人·地의 三部九候診을 受容한 《難經·十八難》 氣口脈의 三部九候診을 援用하였으며, 氣口脈의 按診法과는 差異가 있다. 氣口九道脈의 九道를 水平的인 區分보다는 垂直的인 區分의 九道로 解釋하는 것이 氣口脈에 三部九候診의 方法을 運用하는 氣口九道脈의 意義에 附合한다. 이와 같은 緣由로 보면 《醫碕¹⁷⁾》에서 氣口九道脈을 氣口脈 三部九候診으로 解釋한 것이 妥當性이 있으며, 《雜病源流犀燭》에서는 圖로 脈診部位 및 脈象을 설명하고 있다.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氣口九道脈에서 奇經八脈의 診斷과 病候를 十二經脈의 病候와 連繫하여 解釋

하면 《針經指南³³⁾》, 《針灸大全³⁴⁾》 및 《針灸大成³⁵⁾》 등의 八脈交會穴을 應用한 鍼灸 治療法과 《本草分經·奇經八脈³⁶⁾》, 《得配本草·奇經藥考³⁷⁾》 《奇經八脈考校注·用藥大法¹⁴⁾》 등의 奇經八脈으로 歸經하는 本草 및 奇經八脈의 病症에 《奇經八脈考¹⁴⁾》, 《臨證指南醫案¹⁴⁾》, 《雜病源流犀燭¹⁹⁾》 및 《奇經滙海辨證論治³⁸⁾》 등에 記載된 方劑의 遵用 및 針과 藥物의 竝用治療에 奇經八脈의 診脈法인 氣口九道脈을 適用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V. 結 論

《脈經·卷十·手檢圖》에 最初로 記載되어 있는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에 對하여 研究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氣口九道脈은 《素問·三部九候論》의 上, 中, 下部의 天, 人, 地로 區分한 三部九候를 《難經·十八難》에서 寸, 關, 尺部의 浮, 中, 沈按으로 收容한 氣口脈의 三部九候診을 運用하였다.
2. 《脈經·卷十·手檢圖》에 記載되어 있는 氣口九道脈의 “內·外” 字의 診斷 意味를 浮按·沈按으로 解釋하는 것이 氣口九道脈이 《素問·三部九候論》의 三部九候診을 收容한 氣口脈 三部九候診에 附合한다.
3. 氣口九道脈의 脈象은 奇經八脈의 病이 獨立的으로 發病하지 않고, 經과 絡의 病이 流入되어 나타나고, 傳經이나 流注에 依한 傳變이 없이 忽然히 發病하고 忽然히 潛伏하므로 奇經八脈에 病이 있으면 나타나고, 病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고, 發病하면 邪氣 있는 實한 形象의 脈象이 나타난다.
 - 1) 督脈, 衝脈, 任脈은 一源三岐하므로 寸關尺의 三部에서 診脈한다.
寸, 關, 尺의 三部에 浮脈이 나타나면 發揚하는 形象이므로 督脈에,
寸, 關, 尺의 三部에 緊脈이 나타나면 收斂하는 形象이므로 任脈에,
寸, 關, 尺의 三部에 牢脈이 나타나면 堅實하며 有餘한 形象으로 沖脈에
邪氣가 있음을 의미한다.

- 2) 帶脈은 身體의 가운데의 中間에서 全身을 循環하므로 띠를 돌려 맨 것과 같다. 그러므로 彈搏의 脈이 左右의 寸·關·尺의 關部에서 弦緊彈指 하는 脈象이 나타난다.
- 3) 陽蹻脈은 足太陽의 別로서 外踝 위로 순행하고 風池로 들어가 太陽과 合해져 頭에 이르므로 陽의 徵候를 나타내는 左·右手의 寸部가 弦緊彈指하는 脈象이 나타난다.
陰蹻脈은 足少陰의 別로서 內踝에서 上行하고 咽喉에 이르러 衝脈과 만나고 頭에는 不至하여 陰의 徵候를 나타내는 左右手의 尺部가 弦緊彈指하는 脈象이 나타난다.
- 4) 陽維脈은 外踝에서부터 어깨에 出하고 腦에 이르며, 陽維脈은 尺(沈)內部에서 寸(浮)外部로 斜診하며 始沈終浮하는 脈象이며, 《脈經》에서는 陽絡 즉 陽維脈은 ‘來小時大’, ‘暫小暫大’ 한다하였다.
陰維脈은 內踝에서부터 腹으로 들어가고 咽喉에 이르며, 陰維脈은 尺(浮)外部에서 寸(沈)內部로 斜診하며 始浮終沈의 脈象이며, 《脈經》에서는 陰絡 즉 陰維脈은 ‘來大時小’, ‘暫大暫小’ 한다하였다.

VI. 參考文獻

1. 王琦 外.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 成輔社. 1983 : 258.
2. 葉霖. 難經正義.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 32-3, 44-54.
3. 王羅珍.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 3.
4. 任應秋. 黃帝內經類析. 呼和浩特 :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 258.
5. 李梴. 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 : 南山堂. 1984 : 393.
6. 張路玉. 張氏醫通. 新竹 : 金藏書局. 1976 : 278.
7. 滑壽. 難經本義.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 32.
8. 서용원 · 윤종화 · 김갑성. 馬王堆 出土 醫書 中 《脈法》에 관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1) : 215-24.
9. 신광순 · 장준혁 · 윤종화. 《靈樞·經脈》의 寸口 人迎脈診에 관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1) : 210-14.
10. 徐靈胎. 徐靈胎醫學全書·難經經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7.
11. 왕소영. 최환수. 김용진. 송대 교정의서국(校定醫書局)에 대한 고찰 (학술연구의 근거구축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 2004 ; 25(1) : 96-110.
12.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640-66.
13. 羅慶燦. 王叔和 『脈經』의 文獻의 研究.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1-13. 1024-53.
14. 王羅珍.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 18-9. 109-13. 125-32.
15. 李中梓. 醫宗必讀.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 67-8.
16. 李滌. 身經通考.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3 : 171-74.
17. 何夢瑤. 醫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4 : 508.
18. 李廷是. 脈決彙辨.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 105-11.
19. 沈金鏊. 雜病源流犀燭.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 8-9. 159-75.
20. 林之瀚. 四診抉微.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 115-9.
21. 서용원. 윤종화. 김갑성. 馬王堆 出土 醫書 中 《脈法》에 관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1 : 215-24.
22. 황민섭. 손성철. 배대영. 김갑성. 윤종화. 古代 經脈病症體系에 있어 “是動則病”과 “是主 某所生病”에 관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2 : 14-27.
23.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北京 : 華夏出版社. 2001 : 460. 565-6.
24. 劉冠軍. 脈診. 台北 : 啓業書局. 中華民國78年 : 26-7.
25. 金富煥. 倉公傳에 나타난 秦漢 醫學 思想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66-7.
26.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6 : 1-6. 80-5.
27. 余白漠. 內經靈素考.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 122-8.

28. 沈時譽. 醫衡.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85：卷一-10.
29. 曹東義. 神醫扁鵲之謎.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168-82.
30. 何愛華. 難經解難校釋.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2：295-307.
31. 李梴. 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南山堂. 1984：393.
32. 黃砥. 脉确.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1：49.
33. 李鼎. 王羅珍. 李磊. 子午流注針經 針經指南合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263-98.
34. 徐鳳. 鍼灸大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7：82-119.
35. 黑龍江省祖國醫學研究所. 針灸大成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664-93.
36. 姚瀾. 本草分經.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154-5.
37. 嚴西亭 施澹寧 洪緝菴. 得配本草.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239-40.
38. 王安綠. 奇經滙海辨證論治.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3：8-203.